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시 18:1)

주간 충현

발행인: 김 창 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9월17일 당회

이종윤 목사 본교회 사면

신실성 결여 및 익명투서에 따른 도덕성 결핍 사유
임시당회장에 김창인 원로 목사

본교회 당회는 지난 9월 17. 8일 양일간 당회실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이종윤 목사를 당회장 직에서 사임시키고, 후임 당회장이 초빙될 때까지 김창인 원로 목사로 하여금 임시당회장 직을 수행토록 하고 교회행정 전반에 걸쳐 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종윤 목사의 사면처리는 9월 17일(화) 새벽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는 교역자, 장로 연석모임에서 세분(이종윤 목사, 김연이 전도사, 김인숙 비서)의 증언을 듣고, 당일 저녁 임시당회를 개최하기로 당회원 전원의 요청이 있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임시당회에서는 이종윤 목사에게 두가지 질문을 했다. 첫째는 원로 목사에게 보낸 익명투서가 이종윤 목사가 한것이 사실인가? 두번째는 전도사를 받아지 차림으로 부른적이 있는가? 이 두가지 질문에 이종윤 목사가 시인했다.

계속해서 이종윤 목사 거취에 따른 찬반양론이 있는 가운데 어느 당회원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그동안에도 교역자 가운데 근신을 시킨 예를 들어, 당회장 이종윤 목사건도 1) 김연이 전도사에 대한 건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므로 불문에 붙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당회장 실을 축소할 것과 2) 당회장 측근 중의 측근인 전직, 현직 비서관의 폭력행사로 피를 흘린 사태에 대해서와 3) 익명투서에 관한 건은 정직과 도덕성 문제가 되므로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당회장이라 할지라도 근신을 시키는 것을 제안하되 국내에 계시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기므로 해외여행을 약 2개월 정도 보내므로 근신케 하자는 제안의 동의와, 또 한편 개의를 밝히려는 당회원은 “이종윤 목사에게 질문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시인한 내용에 책임을 지고 당회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되어 토론과 표결에 앞서 장시간 기도회를

갖고 당사자인 이목사에게 마지막 소명의 기회를 주었고 본인도 당회의 결의를 승복하기로 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에 붙인 결과 ‘개의’안이 통과되었다.

성명서 등 불온 유인물 배포에
현혹 없기를

한편 당회는 지난 9월 30일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지난 임시당회 회의록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떤 성명이나, 서명운동 연판장, 그리고 공동의회 소집의 불온 유인물이 교회내외에 배포되는 일과, 이 일에 관여하는 교인들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동시

다시는 교회분열을 조장하는 불법 행위가 유발되지 않도록 강경한 결의를 통하여 차단키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교회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더욱 기도토록 하고, 교회와 당회가 허락치 않은 일들에 대하여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 당부했다.

이종윤목사가 사임하기까지
사건개요

지난 8월 11일 주일 3부예배시 본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는 축도 하시기 전 동구라과선교여행 후의 심경발표를 온교인 앞에 설명하면서 이종윤목사의 진실의 허구성을 실예를 들어가며 설명한 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이틀후 7월정기당회(8월 13일)에서는 당회참석을 원하는 원로목사가 직접 참석 못하고, 서면을 통하여 당회 앞에 건의서가 제출되었다.(이 건의서는 최석주 장로가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어 당회서기에게 전달한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당회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나는 충현교회 설립 이래로 34년 8개월 동안 봉직하다 은퇴한 사람으로 현 당회장 이종윤목사 취임하신 후 이분의 목회 사역을 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원로목사로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① 교회 통개수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여야 합니다. 가감하여서

는 안되는데 현재 교인 수를 3만 5천명으로 증가하여 홍보하고 있으니 시정하여야 되며

② 충현교회 새예배당 건축 도중 부채가 많았는데 교회가 흥해작전을 하고 빚을 갚고 준공예배를 드렸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으로 사실과는 다르고 비디오나 구두로 전하고 있는 것은 금하여 주기 바랍니다

③ 전교인이 성경을 암송해서 기록한 것까지는 좋으나 교회행사 때에 빼고다니는 것은 목사님이 신성을 모독하는 일로 이런 홍보나 행사를 금지할 것과 교회에는 교회당 내외를 막론하고 어떠한 행상을 세울 수 없으며, 더욱이 보수교단에서 사람을 높이는 일은 더욱 그러합니다.

④ 소식판 앞의 소식 비는 본인을 높이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제거하실 것

⑤ 교회 뜰에 새운 돌성경도 막대한 경비와 우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함으로 제거할 것을 건의하며

⑥ 시계탑이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으나 이런 모양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카톨릭교단 교회들이 만드는 조각과 형상까지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그런 형상은 제거하고 오직 말씀만 충만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⑦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지에도 “충현교회”라고 하고 휴지로 사용되는 것이 좋게 생각되지 않는고로 시정하고

⑧ 각종 유인물도 화려한 낭비를 지양하고 현금을 절약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인간은 겸손히 숨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이고 악마는 두려워하는 결과가 됩니다. 만일 사람이 교만해서 과장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마귀는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원로목사로서 그간 느끼고 생각하고 시정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건의합니다. 교회와 당회원 여러분과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8개항에 달하는 시정사항을 건의했으나,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당회원 일동(이날 참석자는 54명이었으며 51명이 싸인했고, 그 이후 이목사 권면으로 11명이 서명, 모두 62명이 서명했다.)의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하여 원로목사에게 전달케 하고, 강단에도 설 수 없도록 결의케 하였다.

이날 당회원들은 원로목사에게 는 예의가 아니지만 오직 교회의 화평과 질서를 위하여 눈물을 머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작성케 되었다.

원로목사에게 전달된 결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충현교회는 모범적 교회를 지향하면서 세계를 교구로 삼고 날로 부흥하고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지난 8월 11일 주일 3부예배시, 본교회 김창인 원로목사는 축도하는 시간에 동구라과 선교 여행 후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섭합을 온 교인 앞에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은혜롭지 못하게 하여 성도들에게 신앙적 손해를 크게 끼친 바 있다. 이에 우리 충현교회 당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이를 김창인 원로목사에게 전하여 충현교회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신앙의 모범교회로 지향함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우리 당회원 일동은 교회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2. 김창인 원로목사께서 8월 11일 주일 충현교회 3부예배시 행한 일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후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당회원 일동은 기도한다.

3. 우리 충현교회 당회는 이종윤 위임목사를 당회장으로 모시고 전과 같이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결의한다.”

그 이후 원로목사의 8개항 건의가 이유있다고 생각하는 장로들이 뜻을 같이하여 “이종윤 목사님께 드리는 건의문”을 만들어 40명의 장로들이 서명 날인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것도 완전 묵살당한채 폐기된 바 있다.

40명 장로의 서명날인된 건의문 내용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충현교회는 개혁주의 보수신앙에 입각하여 삼십 팔년의 짧은 역사 위에 세계 속의 경이로운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먼저 감사드리고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종윤 목사를 우리 충현교회 담임 교역자로 세우신지 3년, 그동안 노심초사 열심있는 목회사역과 원대한 비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는 “하나님 중심의 사역”을 목회철학으로 삼고 순교자적



시편강해

여호와와 우주의 대왕이시다

(시 47:1-9)

김 창 인 원로목사

본문의 저자는 고라 자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유대의 4대 임금 여호사밧왕 때 모압, 암몬, 앗돔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유대를 삼켜 버리려고 침략을 했습니다. 한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도 무서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그들로부터 뜻하지 아니한 공격을 받게 된 여호사밧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모두 금식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천지자 아하시엘이 일어나 "많은 원수들을 인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선물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내일 아침에 원수가 쳐 올라오는 대로 마중을 나가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왕과 백성들은 모두 땅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성가대원을 앞장세우고 군대와 백성들이 전쟁터로 나가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찬송을 부르며 나간 것입니다.

400명이 넘는 예루살렘의 성가대원이 찬송을 부르며 나오는 것을 본 원수들은 그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암몬과 모압 두 나라는 자기들을 총동원하여 전쟁에 끌어들이는 애도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가대가 찬송만 부르면서 자기들끼리 싸움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게 암몬과 모압은 애도나라 백성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암몬과 모압 두 나라가 서로 싸움을 했습니다. 마침내 모압과 암몬 군대도 전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니 예루살렘은 위기를 면하고 전쟁에는 승리를 하고 아울러 재산도 생겼으며 세계가 떠는 권위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은 원수들이 먹으려고 싣고 온 양식과 의복과 무기를 사흘이나 걸려

옮기고 나흘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백성은 기쁨에 넘쳐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나와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47편입니다.

1. 찬양의 내용

첫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으로 찬송을 부른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도 많습니.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 중국에는 모택동을 찬양하는 노래가 많았습니.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첨입니다. 또 사람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모택동이 살았을 때는 모택동을 찬양하는 노래가 그렇게도 많았는데, 모택동이 죽고 나니까 찬양은 커녕 모택동의 측근을 숙청하는 바람이 일어났습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임금님이십니다. 천하에 비교할 자가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임금님, 높으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하였습니다.

둘째, 엄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으실뿐만 아니라 엄위하십니다. 모든 것을 살살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죄없는 모르드개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국무총리가 되더니 전생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12월 13일에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알려주셨고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던 날, 점심도 채 못먹고 모르드개를 매달려던 나무에 그를 목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강경해도 하나님은 악한 자의 권세를 조사하실 필요도 없애다 정리해 버리십니다. 마치 개새 나무가 사과나무의 영양분을 몽땅 도둑질해 먹고 우물거리고 커도 농부가 보고는 가시나무를 도끼로 찍어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조수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십니다. 지도의 색깔을 하나님이 변경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던 옛날 사람들도 "모사(謀事)는 재인(在人)이요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을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땅위의 열서는 하나님이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넷째, 사랑하는 자를 특별 취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드려 찬양해야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여호사밧왕은 전쟁에 일어나기 전에는 실수를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인간적으로는 강한 왕이 못됩니다.

악한 것이 인생이고 죄악에 때문에 더러워지기 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연단하기 위해서 잠깐 징계하셔서 만드신 보호하시며 잘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알기주시고 막대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에 실력이 모자라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특별 취급을 해주십니다.

여호사밧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세 나라의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몽땅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쌍한 한 사람도 안생기고

적들이 싣고 온 양식과 의복과 무기를 가져 오고 이웃의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무서워 떨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에게는 천국을 주실 뿐 아니라 땅 위에서도 기업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합니다.

2.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권능

첫째,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말 가운데 최고로 높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백성

을 사랑하시므로 세상에까지 친히 오셨다가 이제 승천가의 나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올라가신다는 말입니다.

암몬, 모압, 앗돔이 저희들끼리 싸워서 죽은 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교만하였던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 영광만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적은 자들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멸망의 징계를 당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악마가 우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메리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를 쏟으시면서 악마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에게 천국가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는 승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6절을 보니 찬양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네 번 찬양하라고 하는 말은 입과 마음과 영혼으로 영원히 계속해서 찬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하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가 마침내 영원히 저주를 당합니다.

둘째, 보좌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지구에 있는 나라를 치리하십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셋째, 자존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함을 얻은 신자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인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위험한 일을 면할 수 있는 판단력은 오직 하나님의 품안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자기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앞에 입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혼으로 찬양하며 생명 전부를 바쳐서 세상 끝날까지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담대했던 여호사밧왕처럼 살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수가 쳐들어 왔을 때 여호사밧왕이 행했던 일은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뿐 아니라 왕의 명령에 복종했던 성가대원들, 찬송하며 원수를 막았던 그들의 남용한 태도에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또 세상에 오실 때 마중 나갈 준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와 여러분들이 본문과 같이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부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면에서의 계속

사명과 인격적 감화력으로 믿음을 심어 주고 양육하신 김창인 원로목사의 헌신의 바탕 위에 아름답게 열매 맺고 있음을 확신 하면서 두 분의 목회 사역에 무한한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만 김창인 원로목사의 질의서 제출 사건은 먼저 당회 원인 우리 장로들이 사전에 그러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지 못했던 불찰에 대한 책임임을 통감하는 한편, 이유있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 장로 일동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몸되신 우리 총현교회가 이종윤 목사를 중심으로 심기일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되게 하기 위한 중정으로 아래와 같은 우리의 견해와 아울러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8월13일자 김창인 원로목사의 건의서 당회제출건에 대하여

저희 장로들은 김창인 원로목사의 8개항 시정 건의건(교회 통계숫자의 과장홍보, 새예배당 건축상황의 왜곡선전, 전 교인 암송책 메고다니는 일, 교회 뜰에 세운 소석비, 돌성경, 시계탑건축, 사치성 각종 유인물 제작 등)은 신앙적 견지에서 볼 때, 정당한 요구로 인식하는 바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유감의 표시가 없음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제반 문제에 대한 시정 방안을 당회가 즉각적이고 신속히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근간에 비쳐지고 있는 우리 총현교회의 중세적 분위기를 칼빈주의적 보수교회 체모습으로 회복함은 물론 금후 담임목사와 원로목사간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되기를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예배의식과 예배당 장식 등의 이의 제기에 대하여.

예배 행위에 있어서의 의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으로써 필요 불가결한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나 신년 촛불예배 및 아시아선교회 시의 고적대 연주 등은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의식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본 예배당 벽면에 게양되고 있는 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칼빈주의적 개혁교회 성격에 불합리하다는 인상을 절게 나타내고 있는바, 이의 재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강단 언어가 너무 자극적

이라는 여론에 대하여
공적예배, 집회, 또는 강의시에 자주 교단이나 총신대학, 교계 원로 및 선배 교역자 장로를 비판 또는 무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이목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됨으로써 많은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재고 시정함이 건덕상 은혜롭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서명 무효 서명 조사위원회 구성

넷째, 교회 행사시 과시성 낭비가 심하다는 중론에 대하여

근간 우리 총현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양적인 면에서 전 성도의 심령을 일깨우고 세계 선교의 발판을 구축하기 보다 귀한 헌금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있다는 저간의 강한 불만은 불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금급과 절약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근간이요 미덕일진대 각종 행사시 필요 이상의 유인물 제작 및 대회 홍보비(일간지, 라디오) 과다 지출 등은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담임목사의 약력 역시 만인이 이미 주지하고 있는바 생략함이 겸손의 덕으로서 신전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후 제반 행사는 성격에 따라 그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 실시 함으로써 전 성도가 지원하는 심정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방향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교회 운영상 자기 직업과 관계되는 이권 부서에 봉사하고 있다는 오해에 대하여.

성도가 자기 직업을 통하여 교회에 봉사함이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써 마땅히 협력해야 할 일이지는 않지만 "배 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교회 발주물에 직접적인 이권이 결부 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가 관계되는 중요 직책에 봉사케 함으로써 신앙 공동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언필칭 공회로서 사랑과 공의의 바탕위에 객관적이며 제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명에 까지 신중한 개선이 요망됩니다.

여섯째, 교회 임용직 인선이 너무나 편협하다는 악성 불평에 대하여

교역자를 비롯하여 직분자 선정, 상임직원 채용등 교회 임용직 인선에 국가도 지양하고 있는 학벌(특히 특정 명문대 출신선호) 등을 밝히는 듯한 인상을 일반 성도들에게 까지 강하게 풍기게 함으로써 "이종윤 목사는 학벌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가까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교회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는바, 금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함이 본인을 위해서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좋을 줄 압니다.

일곱째, 당회 운영에 있어서 대, 매사가 소수에 의해 졸속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에

대하여

장로교회 제도의 특징은 민주주의이며, 민주주의 대원칙은 만인의 의견이 개진되고 합의에 의한 공통의 의지를 집약 시키는 데 그 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근래에 와서 당회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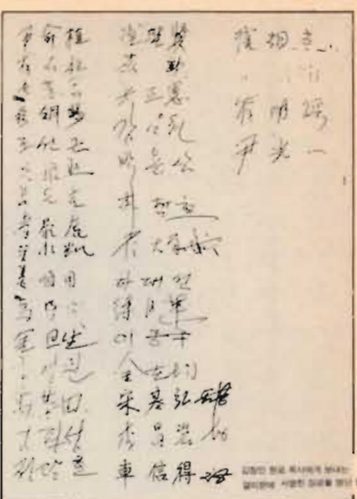
이와같은 내용의 건의문에 대한 당회원들의 서명이 끝날즈음 9월2일 8월 정기 당회에서 정하우 장로의 발언중 ① 교역자 폭력사건, ② 여 교역자 축도사건, ③ 여 교역자 주일성수 위배(여 교역자가 주일 학생앞에서 빵을 구매하는 일)등의 질문을 했으나, 이목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교역자 문제는 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의논해야지 당회석상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편견이 있었다. 이날 당회 끝난후 저녁에 이종윤 목사는 정하우 장로에게 전화를 걸어 "폭행사건이 아니다. 두사람이 화해하고 다 끝난 일을 지금 왜 문제를 제기 했느냐? 여전도사의 축도를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비서로부터 전화 통화에서 "확인해 본바 화해도 하지 않았고, 엄연한 폭행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여교역자 축도사건은 이목사가 "축도문"을 낭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사의 허위성이 드러났다.

이에따라 당회는 교역자 폭력사건을 추적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것이다. 교역자 폭력사건은 김연이 여전도사와 현직 여비서간의 충돌이었다.

9월 14일(토) 김연이 전도사가 증대한 일이 있다고 이병학 장로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때 이병학 장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으며, 정하우 장로도 이날 오후 8시30분경 김연이 전도사가 교회 출판국에서 만나자고 하여 이병학 장로에게 들려준 얘기를 재차 듣게 되었다.

이튿날 15일(주일) 두 분의 장로들은 당회 서기 윤명식 장로를 포함한 김차생, 김영재 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에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40명 당회원이 서명한 이종윤 목사에게 드리는 건의안과 교역자 폭행에 따른 조사위원회 구성건의를 이종윤 목사에게 맡겼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월요일(16일) 원로목사가 김연이 전도사의 문제를 놓고 쌍방 진술을 들도록 이종윤 목사에게 종용했으나 "하겠다"고 대답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으므로 당일 오후 이종윤목사를 원로목사 집으로 불러서 직접 진술을 위한 회의를 화요일(17일)



7일) 새벽6시 소집토록 지시하고 이를 실행했다. 거기에서 7개문제와 투서 사건의 놀라운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난뒤 화요일 임시 당회 개최전 약 1시간 30분전에 다시 이종윤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것도 거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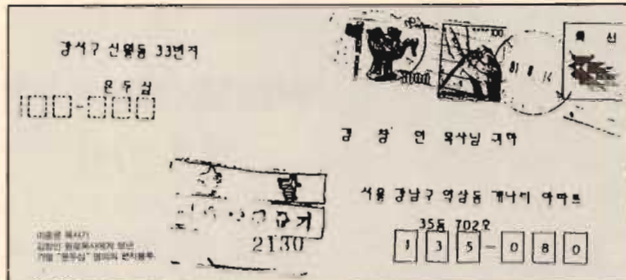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김전도사의 피해자 진술이 있었고, 계속해서 원로목사에게 보낸 익명의 편지(투서) 사건은 이종윤 목사가 친히 작성하여 보낸것으로 1통은 원로목사, 또 한통은 당회서기, 그리고 투서를 한 이종윤 목사등 3통이 타자되어 각각 전달되었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당회 서기에게 전달된 것은 이목사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익명의 총현교의 성도이름은 "윤두심"이란 가명인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이 도저히 목회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태연자약하게 그리고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만한 마음가짐으로 임시 당회에 참석하여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이 마지막까지 투표과정을 참관하고, 투표전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종윤목사는 "당회원 앞에서 목사의 어려움을 이처럼 뼈저리게 느낀적은 없다. 제철계에 관해서는 결백하다. 운동후 반바지 차림으로 여전도사를 부른것과 원로목사께 익명으로 투서한 것은 사실이다.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셨겠지만 나도 마음에 맺힌 말들이 있다"고 말한 후 자리에 돌아갔다.

투서 내용은 앞으로 공개하겠지만, 원로목사의 주장대로 "돌성경" 설치에 대하여 나한테 한마디 의논은 하지않고 당회원 앞에서 의논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무엇이라고 권면해야 할지 안타깝다고 했다.

우리 당회원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위원회별로 여러 차례 교회 개혁 차원의 시정사항을 건의했으나,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진언한 일부장로에게 불이익을 주는 놀라운 횡포도 있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사건 개요이며 사임까지 이르게 된 진실된 내용이다.



전체 의견이 충분히 개진되고 토의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견 접근으로 대소사들을 졸속처리 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당회원 간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갈등 요인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소 완급의 비 능률성도 있겠으나 제도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고 여론을 수렴함으로써 삼십되거나 소외감을 갖는 당회원이 없도록 원만한 당회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우리들의 견해와 건의는 어떠한 저의에서가 아니라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종윤 목사를 잘 보필하여야 하겠다는충정 어린 마음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 또는 개선할 것은 과감히 조치함으로써 불평 불만과 혼란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을 함께 서명한 당회원들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시하는 바입니다."

이종윤목사의 사임이란 충격적인 사건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다.

9월14일 낮에 김연이 전도사가 내 사무실을 찾아와 3시간이 넘도록 그동안 자신이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 전말을 말할때 믿기지않고 남에게 전하기도 거북한 말이었다. 나는 그에게 사건 전말을 서면으로 기록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에게 한 말을 몇분 장로님들도 찾아뵙고 말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일오후 몇분 장로님들과 사건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줄것을 요구하고 김연이 전도사가 진술한 내용중에 등장한 사람 중 한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는 이목사가 단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이 지나서 터질것으로 생각했는데 일찍 터졌다면서 한 두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는 하나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종윤목사를 원로목사님과 68명의 전 당회원이 다 상대 하여도 감당할 수 없으니 나에게 이일로 인하여 승산 없는 싸움은 벌리지 말 것을 부탁했다.

화요일 오전에 시무장로들과 원로장로 교역자가 모인가운데

원로목사 사회로 이종윤목사와 김연이 전도사, 김인숙비서의 진술을 듣고 저녁에 임시 당회로 모이기로 했다.

저녁 당회에 참석하려 집을 나서기전 가족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이때 막내 아들인 형주가 '골리앗은 칼과 창과 검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워 골리앗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라고 한 말이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당회에서 원로 김창인 목사님이 편지 한통을 갖고 나와 이투서가 이종윤목사가 나에게 익명으로 보낸 편지인지 그리고 목사가 팬츠바람으로 여전도사를 침실과 욕실이 있는 방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이종윤 목사의 시인이 있기전 많은 토론이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근신시키자는 동의안이 나왔다. 많은 당회원이 좋은 안으로 받아들일것을 제창했다. 나는 이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사건 전말을 우리가 다 들었고 이종윤 목사가 진실성,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당회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상기하면서 용기를 내어 사면시키는 개의안을 냈다. 비밀투표에 부친결과 참석한 60 당회원 중 30대 30으로 동수가 되었다. 2차 휴회를 하기전 잠깐 정리를 했다. 내가 그에게 바랬던 것은 변변히 엇갈린 상황에서 스스로 교회를 물러가기를... 솔로몬이 두 여인중 천 어머니를 찾아냈던 생각이 났다. 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나의 작은 소망

이병학 장로 (10교구장)

아니래도 상관없으니 아이를 죽이지 말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고 여인에게 주라고 했다. 이종윤목사는 교회가 두쪽으로 나뉘어도 충현교회 당회장직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역력히 보였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반성이나 회개하는 빛이 보이지 않았다.

충현교회 당회장직에 얼마나 머련이 있길래 저렇게 마음이 굳어 있을까 나는 다시 한번 실망했다.

수요 1부 예배후 권사모임이 갈릴리움에서 모였는데 우연히 이목녀 권사님을 만났다. 그는 당회처사가 부당하다며 이 충현교회당을 장로만 지은 것이 아니고 권사들도 짓는데 한몫을 했는데 500여명의 권사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이종윤목사를 사임케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순자 권사회 회장이 나보고 사건전말을 권사님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동안 있었던 일과 당회에서 목사님을 사임케된 경위를 설명했으나 의외로 오랫동안 교회일선에서 많은 봉사를 해온 권사님들이 당회가 권사님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했을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기 보다 목사는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권사님들도 돈을 많이 내었고 장로들은 시간과 물질을 바쳐 이 성전을 건축했다는 자신의 공로를 너무나 나타내며 성도들도 아름답고 웅장한 큰 교회 교인임을 자랑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깊이 잠재해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번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능력과 기사로 강력한 바로를

무너뜨리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큰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감당케 하기위해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 주심으로 보다 더큰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각되었다.

아직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한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아이성을 점령할 때 많은 희생자를 낸것처럼 이종윤목사를 사면케 하고 새로운 당회장을 모시는 일에 우리는 사심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종을 찾아 충현교회 당회직을 맡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넘어가 타협하므로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준 것처럼 교회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해서 해결하려는 방법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면서 슬기롭게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우리 충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다.

제2차 의료선교대회 폐회

지난 10월1일부터 3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기독교 의료선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국민일보사, 극동방송국, 기독교방송국, 한국기독교의사회가 협찬한 제2차 의료선교대회가 열렸다.

"의료를 통해 복음을 땅 끝까지—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이 대회는 선교현장에서 의료 선교를 담당했던

선교사들의 사역 내용을 통하여 선교를 위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고 시대적 부름에 부응하는 선교 정책을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주최측인 한국기독교 의료선교단체협의회는 대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은 우리 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제자훈련 은혜롭게 진행중

우리 교회는 92년도 서리집사 후보자들을 선발한 가운데 이들로 하여금 영적 각성과 헌신적 봉사를 다짐케 하고 91년 직분자 중 제자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성도들이 선행 청지기와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월3일과 11일 제자훈련을 실시키로 하였다. 지난 3일에는 모두 30

0명의 직분자들이 참가하였다. 전도위원회(위원장 우기전 장로)는 10월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군입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도들의 위로를 담은 위문품을 우송하였다.

한편 보다 효과적인 군전도를 위하여 해군 함대에 찬송가 자동반주기 40대를 기증하기로 하였다.

•제9차 세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지난 9월18일 수요일 I부와 II부 예배 시간에 91년도 제9차 세례식을 거행하였다.

김창인 원로목사가 집례한 이 세례식에서는 45명이 학습을, 44명이 세례를, 19명이 유아 세례를 받고, 8명이 입교를, 2명이 개종을 하였다.

•유치부 27일 구연동화발표회

유치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도 김정자 전도사)는 오는 10월27일 학부초청 구연동화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이번 구연 동화 발표회에 많은 학부모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원고제출은 오늘까지 유치

부 사무실로 하면 된다.

장애아동조기교육원 캠프 가져

우리 교회 부설 장애아동조기교육원에서는 장애 아동들로 하여금 일상의 생활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확대하고 일반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30일과 10월1일 2박3일 동안 드림랜드에서 '91 가을 캠프를 개최하였다. 이 캠프를 통하여 42명의 원아들은 13명의 교사와 3명의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가지 놀이 시설을 이용하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회적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중등2부 여리고전 전개

교회학교 중등2부(부장 박영식 장로, 지도 안경소 목사)에서는 지난 9월8일 실시한 총동원 주일에 새로나온 학생들을 완전히 주님께로 영접시키기 위하여 9월15일부터 10월13일까지 "여리고 전도작전"을 진행키로 했다.

중등2부에서는 이 기간 동안 교사 30일 릴레이 새벽기도, 주일 아침 전교사 금식기도, 교사 특별 기도회, 전화 심방, 석션 발송, 직접 심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현장

—새가정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하셨다. 따라서 한 가정을 시작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원하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교회는 79년도에 새가정부를 세우고 새롭게 가정을 꾸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결혼 생활을 영위해나가도록 지도해오고 있다.

현재 부장 최상규 장로, 지도 교역자 최인근 목사를 비롯한 60명의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새가정부는 약혼하고 새가정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부부와 결혼한 지 3년여내의 부부를 대상으로 매주 주일 오전11시에 소석관 201호에서 집회를 갖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에 기초한 결혼 생활을 지도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성경적 결혼관과 가정관의 확립을

위한 성경 공부, 자녀의 신앙 교육 및 경건 훈련, 부부관계, 부모·자녀·기타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한 교육, 산모 건강, 유아 건강, 가족 건강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통하여 회원들이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두었다.

특히 오는 11월3일(주일) IV부 예배 후에는 제1회 신혼가정과 홈 커밍 데이(Home Coming Day)를 개최키로 하였다. 이는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가정을 설계하고, 성숙한 부부로 성장하도록 교육 및 권고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

새가정부 교육에 열심히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은 대개가 찬송가 부르기 대회, 수련회, 가정문예발표회 등 각종 행사들이 일상적인 가정 생활 속에 새로운 과제들로 나타나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면서, 모든 가정들에게 새가정부에서의 참여를 권하였다.